



이런 칫솔 보셨어요? 칫솔모만 바꿔끼면 바로 새칫솔



칫솔모 교체형 아트만 탄생

- 알뜰선택** 바꿔끼는 칫솔모가 2개 더!
- 잇몸보호** 특수스프링의 잇몸보호효과!
- 지압효과** 요철고무에 의한 지압효과!



럭키
아트만
교체형

월간 여성

월간여성10월호 통권323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4) **女聲**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학교급식 확대의 필요성/서은경

특집/1 권영자 정무 제2장관 초청여성정책 간담회
2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 6) **특집1**
그간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 15) **특집2**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폐지에 관한 각 부처와 위원회의 입장
- 22) **여성문화**
연극 '이혼의 조건'/심정순
- 24) **신간안내**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외 두권의 책/이정희, 홍승희 등
- 29) **매스컴에 비친 여성**
사랑의 여러가지 형태를 다룬 드라마 세편
'사랑은 없다' '도전' '숨은 그림찾기'
- 32) **해외여성통신**
여성의원 비율이 20%를 넘는 나라, 스웨덴.../이영남
- 35) **소비자 정보**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8) **여성계동향/황금희**
- 44) **협의회 소식**
- 46) **우리들의 광장**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학교급식 확대의 필요성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 본회 출판공보위원장)

조만간 모든 국민학생의 책가방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학교급식이 학동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미치는 좋은 효과가 입증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1997년까지 모든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학교급식은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확대하여 평생 국민건강의 기틀을 만드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기(禮記)에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현대는 주부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가족의 활동시간이 각각 달라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기회가 적고 밥상머리 앞에서의 교육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단순한 의미 외에 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교육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같은 음식을 서로 협동하여 나누어 먹는 과정을 통하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 주부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나머지는 가사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은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각 나라간의 경제전쟁에 비추어 볼때 매년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인력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며,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필연적인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보육과 급식, 교육이 이제는 주부나 한 가정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가의 커다란 과제라면 이 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커다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는 모든 신체기관 및 세포가 형성되는 시기로, 특히 뇌는 생후 2세에 성인 크기의 약 50%, 4세에 75%, 6~10세에 100% 성장하여 출생부터 2세까지 특히 영양공급에 매우 민감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중 규모가 큰 곳에서는 전문인에 의한 적절한 영양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의 비하여 이 분야의 현실은 답보상태이다.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필연적인 사회상황에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보육과 급식, 교육이 이제는 주부나 한 가정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가의 커다란 과제라면 이 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사회의 커다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에는 나이와 신체의 발육상태에 맞는 개개인의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아동의 지능발달이 빨라지면서 의무교육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치원 원아의 경우, 기본적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이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급식 및 식생활 교육이 선진국처럼 실시되어야 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중학생, 과중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식단의 도시락 2~3개와 간단한 Fast Food로 하루하루의 식사를 해결하는 고등학생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급식의 실시라 확신한다.

이제 학교급식은 국민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 유치원생,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이며 하루 빨리 영유아 시설과 유치원, 중·고등학교에도 전면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이러한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우수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간과 되어서는 안되겠다.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검토중인 공동관리, 공동조리, 급식센터 급식 등의 제도는 각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조사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형태는 획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학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의 제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급식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에 의한 영양교육의 강화와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활력을 갖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 직업을 가진 우리 어머니들이 질적으로 더 높은 사회활동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특집 / 1 권영자 정무제2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다음은 정무제2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94. 9. 9, 호텔롯데) 기조연설과 질의 응답을 녹음본이한 것이다.

그간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권영자 (정무제2장관)

10년동안 여성관련정책도 상당히 진척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힘겹게 달려와서 얻은 결실이고, 이 결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탄탄한 정책기반을 이루기 위해 여성단체 여러분의 참여와 활발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기조연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회장님과 여러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성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진작 여성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신 내용들의 종합입니다. 여성문제는 정부와 NGO, 전문가가 일체가 되어서 함께 밀고 나가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당히 운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정부가 그동안 이룬 여성정책을 먼저 알려드리고, 내년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대로, 여성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큰 물결을 타고 함께 흘러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여성정책이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것은, 60년대 공업화 이후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대폭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여성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고, 또하나 '75년 UN이 '세계 여성의 해'를 정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이란 용어도 쓰고, 또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발걸음으로 기억될 만한 것은 1983년 말에 만들어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여성담당 관련장관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기구중에, 여성정책관련 기구가 생겨난 것은 1983년이 처음입니다.

같은 해에, 이런 심의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정부내 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때문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80년대 전반부에, 이런 중요한 기구의 발족을 본 것입니다. 기구의 발족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성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여성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8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선, 그러한 기구에 걸맞게

몇가지 법을 만들게 되고, 또 연이어서 80년대 초에 발족된 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실제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확장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정책추진체계의 강화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정무제2장관실의 발족이 되겠습니다. 1988년에 발족된 이 기구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이러한 기구가 행정부내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라, 부처의 성격을 띠고 발족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발전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십만이 넘는 시·도에는 가정복지국이, 십만 미만의 시·군·구엔 가정복지과가 생겨서, 이런 기구의 확장과 더불어 처음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에 수백명의 여성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추진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만든 법을 크게 두 줄기로 나눌 때, 한 줄기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실하게 돕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의 중요한 골자는 노동시장의 진출에 있어 여성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여성의 특징인 모성을 보호하는 두 장치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에서부터 정년에 이르

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편 늘 여성들의 평등을 주장할 때나 요구할 때, 장애요인이거나 기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성과 관계되는 문제를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제가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들의 시대요청에 의한 또 여성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사회진출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기본장치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이 개정된 가족법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정의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가정의 규범을 민주화하기 위해 가족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는, 여성계가 오래도록 연대운동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 큰 두 줄기의 법 사이에서 사회진출을 돕는 법, 가정을 돕는 몇 가지 법들이 부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사회진출을 돕기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졌고, 가족을 위한 것으로는 영세가족의 '모자복지법'이 만들어져, 80년대부터 90년대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쪽으로 계속 국가제도를 고쳐오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전통적



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체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가족규범이 보다 더 민주화되고 평등화돼서 평등한 가족이 모여 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되도록 법과 제도의 개정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십년 동안에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보다 여성계의 목소리가 더 앞서서 이루어나간 노력의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UN에서도 1985년 제3차 세계여성회의를 열었고, 2000년대를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372개 조항의 나이로비 전략입니다. 나이로비 전략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가 이 전략을 기반으로 각 나라에 맞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 중간을 지나 10년째 되는 내년 북경대회에서 그 전략을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남은 5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내년 북경대회입니다. 북경대회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각 정부가 나이로비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내게되는데, 나이로비전략이나 내년 북경대회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는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첫째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금년, 내년 3년동안 정책결정과정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운동의 목표와 관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UN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연계체계'입니다. 여성전담기구의 설치라든가, 지방행정과의 연계조직, 또 일반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들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각 나라에 어느정도 체계화 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만큼 열심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75년 이후, 각 나라 여성권리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제고시키고 확산을 시켰는데, 이러한 인식이 각 나라에서 어느정도 제고되고 있는가를 수치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 세기 부분에서 정책발전이 얼마나 있었

는가, 여성의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주로 북경대회에서 다루어질 기본과제로서, 각 나라가 이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에서, 국회여성 진출이 너무 적어 이 부분에선 거의 낙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21세기에도 여성계가 상당한 힘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12대엔 여성의원이 여덟분이었는데, 직선당선자가 두분이었습니다. 29%입니다. 13대엔 여섯분이었는데, 직선은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이제 14대에선 내분에서 다섯분으로 늘면서, 17%로 계속 비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의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늦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추세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91년 지방의회선거를 보면 여성당선율이 0.9%입니다.

대개의 경우, 국회진출은 어려운 현상이 있더라도, 지방의회 여성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동남아시아도 20~30%가 넘는데, 우리는 0.9%이기 때문에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4300명중에 40명, 광역의회의원 866명 중에 여섯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후보자 대비 당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출마를 하면, 당선비율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28.4%이기 때문에 관문을 넘으면 그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최근 여성계가 연대를 해서 20% 공천할당제를 요구한 덕분에 더욱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여성참여를 보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여성장관이 세분으로 14%를 차지했다가, 지금은 두 분으로 8.7%이고, 과거 0.1%였던 차관급에, 이제 여성 한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해서, 여성각료 쪽엔, 신장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여성각료를 많이 기용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 국가전체적인 정책에 여성들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각 부처산하 위원회의 여성수가 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벌써 목표를 세운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 '84년엔 2.2%여서, 위원회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90년도엔 많이 개선되어 그 비율이 9%까지 됐는데, 최근 6.2%로 내려갔지만 2000년대까지, 최소한 15%는 달성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21세기 위원회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목표 15%에 맞추어서 46명중에 7명이 여성위원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없이 15%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제2차관실에선 각 부처마다 위원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여성위원들을 반드시 15%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증가를 위한 특별조치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남성분야라고 생각해서 성별구분 모집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폐지되어 이제 9급 공채를 할 때, 남·녀 구분이 전혀없고, 오히려 여성이 훨씬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93년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도, 여전히 관행적인 차별이 존속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없애서 여성이 같은 조건에 승진할 수 있게 해 고위직으로 진출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넓혔습니다. 하위직 여성공무원들만 있는 상태에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봐서, 지침을 통해 승진에서 남·녀차별적인 관행을 철저히 없애도록 했고, 지방공무원직에서 별정직을 일반화하는 등 승진의 길이 열려있어 사무관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정·관리직으로 나가는 수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은 대개 저임금상태, 주변적 업무에만 집중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문기술행정직, 중심부의 사무직으로 나가야 합니다. '85년엔 전문기술, 관리행정직이 5.4%였는데, '92년엔 9.6%로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민간기업에의 여성인력참여도 UN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가족의 일을 거드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성경영인이 많고, 가족의 일을 단순하게 보조하는 무임노동자가 아니라, 리더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경영인이 적지 않으나, 아직 수치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으며, 앞으로 이 부분의 여성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또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컸나를 UN이 조사합니다. 여성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여성단체들이 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최근 20% 공천할당제 연대모임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문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연대 체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발전계획에 여성의 발전 계획이 통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87년부터 '91년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처음으로 여성계획이 통합되었고, 제7차 '92년 계획에선 여성개발부분이 독립적으로 되어서 교육, 고용, 문화, 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권리제고를 위해서, 정부2실이 한 일들은 법개정 및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해서 여성근로에 대한 법의 보호를 구체화시켰고, 여성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하여, 막연한 평등이 아닌 노동권과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나라 헌법이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에 적극성을 띠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비준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장치들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압력장치 구실도 하고, 건인차역할도 하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활성화 위한 운영의 묘가 있어야겠고, 더불어 준법 정신과 의식의 변화없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선 여러 민간단체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상으로 국·공립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과목을 개설, 여성정책을 설명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알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에서부터 평등의 기반을 가지기 위해 신설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여성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프로그램 심의를 통해 차별의식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의 개정입니다. 교과서가 남성중심의 사고를 재생산하는 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교과개정에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집필기준에다가, 남녀 평등의식강화를 넣겠습니다. 추후 검토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탁아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서 '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었고, '97년까지는 모든 보육대상들이 보육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10년동안 여성관련정책도 상당히 진척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힘겹게 달려와서 얻은 결실이고, 이 결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탄탄한 정책기반을 이루기 위해 여성단체 여러분의 참여와 활발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세차례 열린 세계여성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세계여성회의 참석이후 국내행동계획을 따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합의된 계획이 없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5년 세계여성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도 회의 내용을 듣고 와서 우리정부와 NGO와 전문가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합의된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경여성회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응답〉

▲박정희(서울YWCA 회장) : 여성공무원들은 별정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게입니까?

→권장관 : 공무원은 일반직이 원칙입니다. 여러 자리에 순환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별정직이 많은 것은, 여성관련 기구가 늦게 발족되어, 그당시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시험이 있지만 합격률이 15%에 불과합니다.

여성공무원이 공채로 꾸준히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영역이 확대되어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송자(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장) : 서울시 개편에서 가정복지국이 보사국에 편입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권장관 :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기구 축소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기구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국이 하는 일이 사회국의 일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통합표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금년 봄에 이런 통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정부2실은 여성의 과제와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가정복지국은 계속 존속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런 논의를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서울시 개편안에 가정복지국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성계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민자(청년여성교육원 원장) :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주택자금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시 '세대주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어렵고, 여성명의의 집이 남성에게 넘어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중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조항을 둔 것이라면 1가구 1대출 식으로 해서 세대주 요건을 바꿀 수 있는지요?

→권장관 : 지난 7월부터 세대주의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서 한명이 세대주로 등록하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

습니다. 부인쪽 직장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했을 때, 부인이 세대주로 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대주 부문에 관한 제도가 바뀌었으니 적극 활용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관계는 내무부에서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민의 신고가 있을시 세대주 기재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경자(전문직 여성클럽 한국연맹 이사) :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약국인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이 조약에 가입할 때 가족법 중 상당부분이 고쳐져 있지 않아 여러 조항을 유보하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조항이 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것을 UN에 왜 이 부분이 아직도 유보로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보고서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유보조항을 두었을 때, 몇 년안에 관련법들이 평등하게 고쳐지도록 유도하는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보조항을 풀기 위해서 즉, 국내법을 평등하게 고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장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국가보고는 4년마다 하기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91년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문제의 나라로 지목되었으나, 동성동본과 호주제가 상속에 서 승계로 바뀌는 등, 그 개선 내용이 보고되자 지난해 별 문제없이 접수됐습니다. 아직까지 국적법과 직업을 갖는 권리에 대한 부부의 동의 부문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개선안이 선뜻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가 그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간호장교를 포함하여 여군이 현재 1,009명인데, 아직도 장성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장관: 여군 장성 탄생은 시기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건의되었고, 차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사문제여서 그 시기가 언제일거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정자(우리민족해방운동본부 회장, 본회 근로여성위원장): 할당제와 관련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20% 할당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에만도 한 천여명의 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는 NGO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정

부차원에서 후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나 21세기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의 선발 총원과정을 알고 싶고, 그 과정에서 NGO대표에게도 할당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 실무자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권장관: 할당제 문제는 행정부가 선두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당의 일이고, 정당과 민간단체들이 사람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정책에 반영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 선발은 위원회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전문인력을 선출하고 있기에, 반드시 NGO대표가 그 속에 들어야 한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전문인력이 되어 위원회에 고도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우리 속에 확보되어야 하겠습니까. 한편, 여성단체 실무자 육성부문은 저희가 실무자 연찬회를 열어 여성문제에 대한 교감 및 연대의식, 정보교환을 돕고 있습니다.

▲김령자(본회 근로여성위원, 한국노총여성국장): 여성고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 여성의 학력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요즘 대기업에서는 인턴제를 통해 여성인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권장관: 여성고용확대를 위해 저희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여대취업담당학생처장과의 간담회를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각 기업체에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준비자세에도 문제가 적지 않아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투철한 직업의식의 훈련과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고학력 여성의 고용증대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정치 참여를 제1의 과제로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고, 그 동안에 나타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때,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별로도 어떻게 여성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언론매체의 홍보, 국민여론환기 캠페인에 대한 구상 등 여러가지 구체적 방안들이 있어야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20% 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 노력만으론 안되고 정부, 민간의 합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제2장관님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장관: 공약사항 중에 여성발전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8개 분야 33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중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분기별로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있어선 이론만 내세우기 보다는 우선 각자가 지방의회 등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과감하고 생길에 나설 각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분들의 각오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와 같은 단체모임을 언덕 삼아 즐기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은방희(한국여성문화생활회 회장): 장관님께서 취임직후 국민들의 개혁은 여성들의 몫이며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간 성과는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부양문제가 사회문제 특히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구상이 있는지요?

→권장관: 문민정부들어 의식개혁은 계속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민간단체들이 함께 의식개혁을 주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식개혁은 몸에 자연스럽게 배일 정도가 되어야지, 성급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요즘 과소비 풍조를 차단 억제하는데 애쓰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도 이번 추석을 검소하고 건전하게 보내도록 계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고 있고 여성노인의 수가 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담으로 앞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요양원을 매년 4~5개 설치하며, 노인주택 확대, 건강진단 사업, 노인 의료보험기간 연장 등 여러 노인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규(국제존타서울클럽 회장): '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단은 몇명으로



구성되며 그중에 NGO대표는 얼마나 포함되니까?
또한 정부에서 NGO포럼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권장관: 세계여성회의가 내년 9월에 열리므로
대표단 구성은 아직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때보다도 대표단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고, 그냥
대표보다는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NGO대표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NGO포럼의
계획서가 아직 저희에게 도착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 및 성격, 프로그램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 포럼에서 자유롭게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므로
우리 NGO들은 이야기할 거리 즉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합니다.

▲이경순(본회 기획연구위원, 방송평론가): 성차
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성차별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가
'92년 '93년 방송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4개분과 28명의 위원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해 어떤
분과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어
린이 만화 '무적의 파워레인저'도 결국은 어머니
들이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극장영화나 비디오를 심의하는 공연윤리위원회에도
여성의 참여가 미미하고 내년에 시작될 종합유선
방송위원회 구성에도 이같이 여성의 참여가 적다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방안이 어느 정도 진척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장관: 대중매체만큼 사실 의식변화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파워를
가진 대중매체도 소비자, 시청자에게는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점이 시청자 운동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겠습니까. 내년 북경세계여성회의 때도
대중매체의 활용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중 하
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지적하신 성차별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제까지 방송위원회에
여러번 건의했지만 여러 사정상 그 구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번에 여성정
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아래 특별위
원회를 두고 여기에 성차별 개선 기능을 위임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입니다. 이 위원회가 모니터활
동을 하는 단체와 연계해 성차별 사항을 보고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하는 메
카니즘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윤수자(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농어촌 여성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인구가 고령
화 여성화돼가는 추세여서 농어촌여성의 사회지위
향상 및 복지향상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중인지요?

→권장관: 농어촌 인구가 전체인구 속에 차지하
는 비율이 작긴 하지만 농어촌문제가 대단히 심각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까지 각 부
처로 흩어져 수행되던 여성정책들을 매년 3월, 보고
받고 평가하고 다음계획안을 심의하는 제도가 확
정지어졌기에, 정부2실이 종합조정 및 제기능을 발
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을 창구를 각 부
처마다 마련했고 따라서 총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모아 범위를 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가장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에서 토의하고 또 농어촌 여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특집 / 2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폐지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 제60차('94. 7. 27) 및 제64차('94. 9. 7)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토의되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 소개한다. 본회는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성계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폐지에 관한 각 부처와 위원회의 입장

군복무는 모든 국민에 봉사하는 일반적 공익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조세등의 수단을 통해 전체 국민이
담당해야 함에도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을 지망하는 극히 한정된
국민의 희생으로 그 보상이 충당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1. 정무장관(제2)실 (동의)

1) 여성의 공직참여 필요성

- 정부 각종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절반은 여성임.
따라서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에 여성이 많이 참
여하므로써 남녀간 균형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확대되는 현대사회
의 추세속에서 공직은 여성취업의 핵심대상으로,
전문직의 하나로 타 경제분야에 귀감이 되도록
여성의 진출장벽을 없애야 함.

2) 문제의 요지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무처
및 각 시도별로 실시되는 7급 및 9급 공개채용
시험에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특전이 있음.
- 그러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2년이상 복무
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를 부여하는 가산특전은
군미필 남성과 여성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
하고 있음.
-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특전은 군생활로 인한 사
생활의 피해보상이라는 법정신과 군 미필자 및
여성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3) 군경력 가산특전에 대한 문제제기 배경

○ 여성계의 문제제기

- 정무장관(제2)의 정무활동시, 또는 여성공직
참여를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계속문제 제
기되어 왔으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외부에
공론화되지는 못함.

○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제안

- 총 5건의 관련 제안이 접수됨.
- 제안 5건중 여성제안자는 2명이며 (1명은 남
녀가 불분명함) 3명은 남성면제자에 의한 제
안으로 군경력 가산특전 문제는 비단 남녀의
문제가 아닌 남성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됨을
보여줌.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여론

- 정무장관(제2)실의 『여성과 공직설명회』('94.
5. 9. 이화여대)시 참석한 200여명의 여대생들
로부터 가산특전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
었음.

○ 정무장관(제2)실 『평등의 소리』에 접수된 제안 내용

- 접수건수: 11건(모두 여성임)
- 주요제안내용
• 3~5%의 군경력 가산특전은 한두문제 차이

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 현실에서 엄청난 특혜임.

- 이는 헌법상 인정된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7급 시험의 경우 혜택을 넘어 마치 여성에게는 공무원 임용기회 자체를 막는 것 같은 인상임.

4) 가산특전을 부여하는 영역

□공무원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채용시험시 5% 또는 3%의 가점부여
- 채용후 군경력 호봉인정 및 이에 따른 봉급인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채용시험시 가점 없음(법상 6급이하 공무원에 한 가점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연수성적에 군경력 가점 2.5% 적용('93년까지 5% 가점이었으나 법적근거도 없이 행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발이 심해 낮춘것임)
- 임용후 호봉인정 및 이에 따른 봉급인상

□공기업

- 채용시험시 가점 및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와 (예: 한전, 전기통신공사 등) 호봉만 인정하는 경우 (예: KBS 등)가 있음.

□사기업

- 인사권 영역에서 면접시험시 남녀비 균평과 미필을 선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 입사시험에서의 가점 부여는 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함으로써 불가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실무 의견임.(법 제6조)

5) 군경력 가산특전의 문제점

- 군복무는 모든 국민에 봉사하는 일반적 공익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조세등의 수단을 통해 전체 국민이 담당해야 함에도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에 지망하는 극히

한정된 국민의 희생으로 그 보상이 충당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

- 여성취업에 있어 정부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이윤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기업에게는 남녀평등이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채용시에는 남녀 차별적 관행을 존속시키고 있음.

- 채용후 보수등에서 군경력을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채용시험시 가점의 부여는 이중의 특혜가 됨. 또한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등 각종 고등고시시험에는 가점부여가 없어 신분적 측면에서 형평에 위배되고 상대적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군경력 가산특전은 실제 시험에서 여성 또는 미필자가 불리한 정도를 넘어 임용기회를 막는 결정적 조건이 되어 버림. (별첨 참조)

- '93년 7급 행정직 시험의 경우 커트라인이 평균 85점이었으며, 가점을 받는 남성은 평균점수 90점이상이 되어야 시험점수 85점 이상을 받았다고 추정됨. 그러나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합격자의 수가 전체 합격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 분포로 미루어 여성은 상위 10% 이상의 시험점수를 받아야 겨우 커트라인선에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결론임.(여성응시자비율: 13.3%, 여성합격자비율: 4%)

- 가점을 부여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부여하지 않는 데이콤의 여성입시현황을 비교할때(통신공사와 데이콤은 비슷한 업종으로 대졸자에 인기있는 기업임), 통신공사 4급 시험에는 여성 합격자가 거의 없는 한편 데이콤에는 20~30%의 여성이 합격, 입사하고 있음.

6) 정무 제2장관실 입장

- 공직은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진출기회를 주고 있음. 따라서 제대군인에게만 가산특전을 부여함은 군복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에게 평등한 공직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됨.

- 장기적으로는 군경력 가산특전은 폐지되어야 함
- 군복무자체가 복무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군복무중의 환경을 개선하고 군복무 경력을 사회활동 경험으로 인정하여 경제적으로 보상

- 단기적으로는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상당한 혜택의 수준인 가산점 2%로 축소함.
- 수혜대상자의 기대감 상실로 인한 반발과 다른 대체수단 채용시의 비용문제등 가산특전을 갑자기 폐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

별첨

가산특전의 영향분석 (표본조사)

○'93년 7급 행정직(공안, 외무직군제외) 현황

(단위: 명)

	총 계	남 성	여 성	여성비율(%)	비 고
합격자	600	576	24	4.0	○여성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0.78%
응시자	23,313	20,219	3,094	13.3	○남성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2.8% ○커트라인: 85점

(자료: 총무처)

○'93년 7급 행정직중 서울지역 합격자 점수분포

(합격자 473명, 커트라인 85.00점)

평균 점수	5% 가점이 없는 점수	인원 (명)	누계 (명)
90점 이상	85점 이상	42	42
89점대	84점대	23	65
88점대	83점대	59	124
87점대	82점대	89	213
86점대	81점대	100	313
85점대	80점대	160	473

(자료: 총무처)

- * 위 합격자중 일부는 10% 이상의 가점을 받은 사람과 가점이 없는 사람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정규 군복무를 마친 남성으로 추정.

○표본분석 결과

- 가산특전을 받는 남성의 경우 시험점수 평균 80~81점 정도면 합격이 가능함: 과목당 만점의 5%는 8과목을 보는 7급 행정직의 경우 총점 40점에 해당하므로 5% 가점을 받은 남성의 점수가 85점이라면 그의 원시험 점수 총점은

640점이고 가점이 없는 여성은 680점을 받아야 동점이 될 수 있음.

- 다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미필자 및 여성은 85점을 받아야 하나 위 점수분포는 5% 가점을 뺀 85점 이상을 받기는 극히 어려움을 보여줌.

2. 총무처 (수정동의)

- 안보개념의 변화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방의무의 중요성 및 안보 현실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로 인한 개인 능력발전 기회상실에 대한 보전은 인정되어야 하며
- 내무행정등 실제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성·별 공무원 구성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참고: '93 총무처 시행 공채시험의 성별현황

(단위: 명)

구 분	응시자 비율			합격자 비율		
	총	여성	비율(%)	총	여성	비율(%)
9급 행정·공안직	62,321	31,964	51	2,106	672	32
7급 행정·공안직	34,778	4,454	12.8	867	37	4.3

-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수 일부 조정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2.5%를
 -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함.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현행과 같이 가산점수 부여)

3. 국방부 (부동의)

-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토록 되어 있음.
- 하위법률인 병역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개병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거 현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여군 제대자에게도 가점제 인정됨.

※ 참고: 가산제 비적용시 공채시험의 성별현황('93)

- 9급 행정직의 경우: 여성이 76% 차지(가산제 적용시 62%)
- 7급 지방직의 경우: 여성이 9% 차지(가산제 적용시 4%)

-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제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정도를 넘어 성의 공직진출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수긍해야 한다고 봄.

-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현역복무자의 사기진작은 전쟁역지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요소이며

- 개인발전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필요

※현실적으로 경제적 보상은 국가재원상 불가능

- 채용시험시 군복무를 마치고 응시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수학 및 각종 시험의 응시제한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동일한 조건의 사람에 비해 응시기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학업과의 연계성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형평성 보장 필요.

- 따라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군의 사기진작과 젊음을 국가에 바친 보상적 차원 및 응시여건의 불공평등을 고려할 때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원봉사 가점제도』 등의

- 가점율은 제대군인의 가점과는 격차를 두어야 함.

(1~2% 이상 적게 줌)

4. 내무부 (부동의)

- 가산제도가 기회균등 내지 평등권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 현행 가점제는 병역의무복무자에게만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는 제도임

- 즉 병역의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의 일반적 의사로 성립된 근무관계로서 가산제는 군복무기간 동안의 개인능력 발전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임

- 가산제가 군복무 면제자 및 여성의 공직임용기회 박탈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여성의 경우도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필한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가산점 부여를 하고 있으며,

- 병역 면제자는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취업준비가 이루어 지는 반면 군복무자는 2~3년간을 국가의 명령에 의해 오직 병역 의무 수행에만 전념하게 되어 취업기회의 상실 등 오히려 군복무 면제자의 경우보다 취업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가산점제도 폐지 내지 수정의견에 대한 지방행정기관 의견

- 중앙행정이 주로 기획·조정 성격의 업무인 반면 지방행정은 집행, 지도 감독등의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여성공무원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애로가 큼

※'93 9급 공채 여성 합격율 사례

- 경상남도 44% → 55% (가점 폐지시)

5. 국가보훈처 (부동의)

- 제안내용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5% 이내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대군인이 아닌자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시의 제대군인에 대한 3~5%의 가산점부여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점제도취지

제대군인 가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개인적 기회상실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존권 수호에 대한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61년부터 시행하는 국가보상제도

*연혁

- '6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공무원, 국영기업체등 채용시험시 5% 가산

- '84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법률

- 복무기간에 따라 3~5% 가산점 부여

- 가점 폐지에 따른 문제점

- 가점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여성 및 군 면제자의 가점제도에 대한 불만제기는 우리의 안보현실 및 군복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가점부여 취지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며

- 대졸자의 취업난 심화, 공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복무 면제자 및 여성들로부터 현행 가점제도를 공직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함에서 비롯됨.

- 가점제도는 공직채용시 특혜라기 보다는 기회

상실 보전적 성격의 형평성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간을 보전시켜 사회진출의 장애요인 제거에 기본 취지에 있음.

○공직채용시험시 가점 부여 영향력 미흡

-가점제도 부여가 7급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총무처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가산제 폐지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9%에 불과

※가산제 비적용시 공채시험의 성별현황('93 총무처)

• 7급 행정직: 여성 4%(가산제 비적용시 9%)

○가점 폐지시 공직 여성비율 과다

-현행 가점부여하에서도 9급 행정직 및 교직의 경우

여성비율 과다로 인해 일선기관의 경우 출산, 당직등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가점 폐지시 여성비율 증대로 문제점 다수발생 예상

※현 9급 행정직 여성 구성비율 62%(가산제 비적용시 76%)

○현역군인 사기저하 및 수험생 혼란 우려

-현역 장병의 대부분이 전역후 사회진출이 가장 큰 관심분야임을 고려할 때, 사기저하 및 각종 공무원 수험생들의 혼란예상

□ 종합의견

○군복무자 가점제도의 취지는 군복무에 따른 개인적 기회상실 보전 및 신성한 국방의무 질서확립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훈 및 예우 차원에서 제도로서, 특정 계층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차별제도가 아니고 더우기 남·여간의 불평등제도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되며 가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가점제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쇄신실무위원회('94. 9. 7)에서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전직급 가점 축소방안 및 소수의견중 일부직급 축소안등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불식시

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저해요소가 있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훈 및 예우제도는 공무원채용 인사정책과는 별도의 제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행 가산제도가 여성들의 공직진출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개선방안

○가칭 「자원봉사법」을 제정시 여성 및 군복무 면제자중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가점부여 검토
-민자당에서 가칭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추진 중

• '95. 1. 1 시행 예정('94. 정기국회 상정)
• 자원봉사활동범위: 사회복지, 범죄예방, 환경·교통·교육등 모든 공익분야 망라
• 자원봉사자 우대방안: 일정 경력이상 자원봉사자 공직임명, 취업 및 진학시 혜택 부여

※민주당에서도 가칭 「자원봉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중

-추진방안

국회에서 가칭 「자원봉사법」 입법추진시, 관계부처 및 여성단체등에서 가점부여 방안 반영 협의

-검토과제

• 자원봉사 기간에 따른 비율 적용
※예: 2년이상, 5%, 2년미만: 3%
• 자원봉사 분야중 군복무와 유사한 수준의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가점 인정 바람직
• 자원봉사 경력인정을 담당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설치: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 성격

6. 연구위원 검토의견

○가산점부여제도는 「평등권」 침해라는데 대해

-군복무 기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발전기회의 상실 및 지연

-「가산제도」는 평등권의 침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함이 타당

○현행 가산점제도는 가산정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

-현행 가산점제도는 가산정도가 높아 합격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가산점제도의 현실화를 기하여 비혜택자와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으로 군복무 1개월 당 0.1%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최고 가산점의 한계를 3%로 함.

7. 실무위 심의결과

○제60차('94. 7. 27) 실무위 심의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연구하여 재상정하도록 함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위원회의 성격상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점 제도의 타당성 및 적법성 중심으로 토의 진행

I) 군복무를 마친자의 군복무에 대한 불이익은 보상해 주되, 여성등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공무원 채용시험시 불이익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무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산점 부여비율, 부여방법(총점 또는 본인 취득점수에 부여하는 방법등)등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II) 국가보훈처에서는 가산점 부여비율이 축소조정될 경우 군인 사기를 고려하여 다른 차원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함.

○수정제안내용 (제64차 실무위 보고사항)

〈제1안〉

-단기적 검토사항

• 대학등 교육기관 사회봉사 과목 개설 및 이수자에 대한 가점 부여
• 병역법상 보충역 가점제도 인정

-장기발전방향

• 가칭 「자원봉사법」 등 특별법 제정시 여성 및 군복무 면제자중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가점부여 검토

〈제2안〉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시 가산점수를 일부 조정함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 25%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함]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현행과 같이 가산점수 부여

○제64차('94. 9. 7) 실무위 심의결과: 실무위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다수의견〉

-6~9급 공무원 채용시 직급에 차등없이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25%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함]

〈소수의견1〉

-6~7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2년이상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25%를
2년미만 군복무자에게 과목별로 만점의 15%를 각각 가산함]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현행과 같이 가산점수 부여

〈소수의견2〉

-군복무에 대한 공동체적인 보상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경우 폐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가산점제도를 유지



연극 '이혼의 조건'

남성 작가가 본 부부갈등의 문제

심정순 (연극 평론가·송신대 영문과 교수)

현대를 사는 한국의 많은 부부들의 공통적 갈등심리를 심도있게 파헤치면서 남편과 아내의 심리 모두를 상당히 열린 의식으로 솔직하게 대변한다.

"우리 이혼해요…… 난 당신과 결혼했을 때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살아왔어요"

올해 서울 연극제 참가작으로 윤대성 극, 정진우 연출로 민중극단이 공연중인 이혼의 조건에서 극중 여주인공인 부인이 외동딸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에게 선언하는 대사다.

과연 우리의 현대 희곡작품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실제로 50년대 유치전의 극 '자매'에서 유치전은 한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두 자매의 문제를 그리면서, 동생을 위해 언니가 자살하는 것으로 결혼을 지었고, 80년 후반, 여성 작가인 정복근은 '웬일이세요, 당신'에서 남편의 외도로 중년의 위기를 경험하는 한국판 위기의 여자를 그렸으나, 결말은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남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와같이 우리의 연극속에 그려진 여인들의 모습은 결혼생활에서 갈등하고 몸부림 치지만, 가부장제의 보수인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의심해 본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들어, 연극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모습은 결혼이나 이혼문제에 있어서 예전의 순종적 인내형의 여인들의 그것과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 작가인 윤 대성은 이혼의 조건에서 남편에게 과감히 이혼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아내를 상당히 열린

시각으로 창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공연중인 정복근 작 '첼로'에서도 상류층의 중년 가정부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결말로 끝이 난다.

작품 '이혼의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광고 카피라이터인 남편, 그 남편과 결혼했을때부터 25년간 이혼을 준비하며 남남처럼 살아온 아내. 세월이 흘러 아들을 유학보내고, 딸은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고서야 아내는 이혼을 요구한다.

아내의 이혼 결심을 촉발시킨 것은 남편의 외도다. 아내의 이혼 요구를 남편은 늘 그랬던것처럼 농담으로 돌려 버리려고 하나, 아내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결혼생활 처음으로 부부는 속을 털어놓고 대화를 시작한다.

부인은 부인대로 자질구레한 일상사에서 나타는 남편과의 생활 방식의 차이들, 즉 삶의 체험을 섬세한 여성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 이유가 뭐요? 내가 뭘 어쨌게?

부인: 이유는, 난 늘 창문을 열고 싶은데, 당신은 늘 닫기 때문이에요.

남편: 여보, 그런 말이 세상에……

부인: 애라를 시집 보낸뒤 며칠 있다 애길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엌 싱크대에서 연기를 술술 내고있는 재떨이를 보는 순간 지금이 말할 때라고 느꼈어요. 당신은 늘 나를 불안하게 해요. 가스를 열어 놓고

외출하지 않나... 어느날 당신이 냉장고 안에다 피다만 담배를 넣어둔채 다시 담배를 찾아 피는걸 보고 내 결심이 되살아 났어요. 난 당신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데 넌더리가 났어요.

이러한 부부관계의 여성 심리를 작가는 상당히 섬세한 시각으로 파헤쳐 들어간다.

동시에 이혼을 내심 원하면서도 요구하지 않았던 남편의 심리적 소외도 작가는 심도있게 파헤친다. 친구에게 남편은 이렇게 토로한다.

"내 아내는 sex를 즐겨하지 않아. 하나의 행사처럼 치를 뿐이지... 그 이후로 나는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서 sex를 찾기로 했네"

부인은 딸에게 '모든 결혼은 불행을 안고 시작되는거'라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정작 딸의 약혼자가 변심을 해서 결혼의사를 번복하려고 하자, 술을 먹여 딸과 밤을 지새게 한뒤 결혼을 강행시킨다. 결혼은 들어가야만 하는 덧인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부부갈등의 문제가 '자의식이 강한 개성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신이 '억센 여자'가 되었고, 남편의 이기심이 자신에게 전염되었다고 믿고 있다.

결국 이 작품속에서 그려지는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타인으로 각기 다른 세계속에서 살아 가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남편의 입을 통해 작가는 한국적 가부장 사회가 떠받들어 왔던 '부부 일심동체'의 결혼 신화를 현실적 시각에서 해체시킨다.

남편: ...결혼이란 애당초 함께 못돼. 결혼이란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게 아냐. 각각 혼자이던 것이 둘이



되는거지. 그래서 적이 되는거야. 부부간엔 승자와 패자가 있을뿐이지 타협이란 없는걸세...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존재론적인 것으로 '부부란 서로가 죽음을 생각할 거를이 없도록 상대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삶을 계속하도록 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젊은 여자와의 외도 역시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녀와 함께 있을 동안은 나는 항상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재고할 것을 종용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강행하고, 딸은 결혼해서 집을 떠난다. 딸은 결혼한 다음날 부터 이혼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오고, 젊은 애인과 잠시 동거하던 남편은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젊은애인에게서도 버림을 받는다. 남편은 자신이 이기적임을 이렇게 인정한다.

"그래, 나는 이기주의자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사랑해 본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작가가 보는 현대 부부간의 갈등심리는 남성의 타협될 수 없는 이기심과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려는 여성의 문제로 정리된다.

이와같이 작가는 현대를 사는 한국의 많은 부부들의 공통적 갈등심리를 심도있게 파헤치면서 남편과 아내의 심리 모두를 상당히 열린 의식으로 솔직하게 대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들어나는 존재론적 작가의 시각은 결혼은 행복의 문이라는 가부장적 신화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만, 역시 존재론적인 이유때문에 결혼제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삶의 방식으로 재천명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오늘의 한국적 결혼방식에 대한 더 나은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부갈등과 결혼의 본질적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과 연결시켜 해석했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미래적 비전 제시가 가능했을 것 같다. 동시에 여주인공의 이혼 사유 역시 자아 실현의 차원을 강조, 부각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의 두 권의 책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 감상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며, 『우리시대의 결혼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틀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술단지를 걸고 본 미국』은 현직 베테랑 여기자 특유의 속도감있는 문체로, 주부만이 갖는 섬세한 눈길로 '영을 샘'들과 어울려 살아 겪은 생생한 체험을 보따리 보따리 풀어 놓은 실용 에세이다.

페미니즘소설 감상의 길잡이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

(하웅백역음/해설·책나무)

『강의실에서 읽는 여성주의 소설』(이하 『여성주의 소설』)은 자본주의 상품논리를 경계하면서 페미니즘 문학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는 몇 안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후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쏟아져 나온 일련의 소설들,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보았다〉를 비롯한 여성연극과 페미니즘 영화제에서 보듯 페미니즘이 90년대 문화 지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인간해방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했던 80년대 페미니즘 논의가 그 결실을 오롯이 거두어 들이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왜 페미니즘은 오히려 만개하고 있는가?

다윈주의의 확산에 따른 철학적 문제들의 변화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페미니즘 관련 문학과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부상한 데는 또 다른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후기산업사회 상품논리와 관련된다는. 지금까지 독서계를 주도해 왔던 계층은 젊은 여성이었고 현재 연극과 영화의 잠재된 주 관객층 역시 여성이다. 이들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신종 상품이 지금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이 될까? 간혹 작가의 진실된 문제의식이 대중의 감각과 행복하게 만남으로써 대중화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에 속하고 90년대 접어들어 만개한 대부분의 페미니즘 관련 문학과 문화는 상품논리의 소산이었다.

자본주의 상품논리가 점점 그 마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페미니즘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소박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책이 『여성주의 소설』이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위은이가 선별한 12작품은 모두 자기세계를 성

실하게 구축해 온 작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글쓰기해 온 작가들도 있고 묵묵히 자신의 문제의식을 풀어낸 작가들도 있다. 페미니즘을 표방했건 하지 않았건 이들은 스쳐지나갈 수 있는 여성의 일상적 삶을 치밀한 그물망으로 건져올렸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여성주의 소설』은 '여성과 결혼', '여성과 사랑', '여성과 정체성', '여성과 사회'의 4장과 각 장에 뒤따르는 위은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여성'과 결혼'에는 박완서의 「티타임의 모녀」, 이남희의 「어머니가 되는 절차」, 박정효의 「폐허일기」가 선정되었다. 「티타임의 모녀」는 지식인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결혼생활을 통해 계급을 뛰어넘는 결혼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다. 「어머니가 되는 절차」는 남편과 불화상태에 있는 '경남'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수'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어머니되기 of 어려움을 다루었다. 「폐허일기」는 아들처럼 길러진 여성의 현실 부적응과정과 내면세계의 황폐함을 통해 남아선호사상이 양산하는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분열된 인간상을 조명하였다.

이 작품들은 평탄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남아선호사상의 반휴머니즘적 측면과 지식인 계층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폭로하는 매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테마에 정면으로 접근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건드리기 예민한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있어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또 있다하더라도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보듯 대개 장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결혼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가능케 하는 단편을 찾는다면 칼날과 사랑이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를 다룬 김인숙의 「칼날과 사랑」이 해당되지 않을까?

제2부 '여성'과 사랑'에는 공지영의 「사랑하는 당신께」, 이정혜의 「빛소리」, 신경숙의 「배드민턴 치는 여자」가 수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당신께」는 유부남을 사랑하는 한 젊은 여성의 유사형식으로 이 여성의

자살이 남자의 비인간적 속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빛소리」는 이기적인 남자에게 지고 지순한 사랑을 바치는 노동자 명희의 이야기다. 「배드민턴 치는 여자」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사랑의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은 여성으로서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가운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사랑 또한 일그러진 모습을 띠 수밖에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3부 '여성'과 정체성'에는 김향숙의 「우해이야기」, 오정희의 「어둠의 집」, 서영은의 「아름아, 돌아오라」가 선정되었다. 「우해이야기」는 주부대학의 시간강사, 박사과정 학생 그 어느 것에서도 정체감을 느끼지 못한 불안정한 기반위에 선 우해라는 여성인물의 이야기다. 「어둠의 집」은 중년여성이 느끼는 가족과의 단절감을 한 여성의 내면풍경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아름아, 돌아오라」는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소외되어 버린 인물 성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들은 중산층 여성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정체감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을 통해 중산층 여성이 처한 존재론적 위기상황을 밀도 있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제4부 '여성'과 사회'에는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 양귀자의 「정호엄마」,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을 싣고 있다. 「티타임을 위하여」는 티타임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정호엄마」는 때릴이 정호엄마의 철저하게 불행한 삶을, 「함께 걷는 길」은 아내가 남편을 도와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위은이가 근작소설 소개에 역점을 둔 탓이자 최근 소설 경향의 탓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주의 소설』은 중산층 여성의 문제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중산층 여성의 문제 역시 중요한 것이지만 기층여성의 삶에 접근한 소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페미니즘 자체가 기존 가치에 대한 전복을 내재한 개념임을 상기해 볼 때

박정요나 이청혜에 대한 평가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기존 문단 바깥 또는 주변부에 위치한 작가의 작품 발굴작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소설』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초보적인 독자들에게 친절한 안내판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여성주의 소설』에 실린 작품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척도로서 남녀 모두의 일그러진 삶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실용적인 미국생활 지침서 《술단지를 걸고 본 미국》

(장경자지음 · 김영사)

신문 취재 18년 경력의 중견 여가자가 배낭족의 투지보다도, 유학생의 밤샘 공부보다도 진솔한 미국 생활 체험담을 넉넉히 들려 주며, 청량계 역할을 하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한국적인 소탈함과 해학이 돋보이는 이 책은 현직 베테랑 여가자 특유의 속도감 있는 문체로, 주부만이 갖는 섬세한 눈길로 '엥글 샘'들과 어울려 살며 겪은 생생한 체험을 보파리 보파리 풀어 놓은 실용 에세이다.

91년 초여름, 뉴욕 지시장인 남편을 따라 2년여간 미국에 술단지를 걸고 살게 됐을 때 귀동냥으로나마 몇 가지 정보를 들긴 했으나, 대개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자'는 식의 배짱으로 미국생활을 시작했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그런데 막상 보파리를 풀고 보니, 아이들 학교 입학

이들 작품의 선정을 통해 엮은 이는 '왜 지금 우리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 주며,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문학과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90년대 문학지형에서 참다운 페미니즘 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여성주의 소설』은 페미니즘 소설 감상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정희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원)

위한 예방접종부터 생일파티 방법에 이르기까지 뭐가 그렇게도 복잡하고,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은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갔다면 훨씬 즐거운 미국생활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서점에는 미국의 정치·경제·역사 등을 소개하는 책은 많은데, 생활안내 책은 왜 단 한 권도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족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와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출국 전 이삿짐 챙기는 요령, 현지에서 집을 구할 때의 주의점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서부터 운전면허 취득요령, 실패없는 쇼핑방법, 이웃집의 애완동물 취급요령 등 실제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소개해 실용서로서의 독점함과 가치를 높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재원으로 나가 살

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집에 외국인을 초대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 저자의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우리 음식 가운데 불고기, 만두, 잡채, 백김치, 고기완자, 무채, 시금치, 숙주나물 등을 좋아하고 후식으로는 오미자차와 수정과, 식혜를 잘 마신다. 물론 요리에 실력이 있고 대접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신선로·구절판·다식등 격식 있는 전통 음식을 차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대접해도 될 상대라면 몇가지 음식만 차려 각자 접시를 주고 덜어 먹게 하는 정도면 무난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는 다른 줄서기 방식, 우리는 보통 화장실 칸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앞사람이 나오면 들어가는게 상례인데 그들은 전체적으로 줄을 서 있다가 어느 곳이든 먼저 나오는 곳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지극히 개인적 이면서 누군가와 마주칠 경우 친밀한 사람을 만나듯

‘하이’ 또는 ‘헬로’하고 스스럼없이 가볍게 인사하는 그들. 한편으로 숫자개념에 하염없이 약한 미국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다. 맛깔스런 수다체에 실은 유머와 위트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바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그리고 책임있는 언론인으로서 쌓아 온 연륜이 없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이 독자들의 증언이다.

또한 집안 일은 거의 남의 손에 맡긴채 계속 직장생활만 하다 휴직하고, 갑자기 전업주부가 돼 살림하면서 느꼈던 순간순간의 당혹감과 그 나름대로의 성취감은 또 다른 주부세계의 체험으로 “언젠가 이런 기회를 가질지도 모르는 수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저자의 체험을 좋은 간접 경험으로 삼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여성 편집부



우리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잣대... 《우리시대의 결혼이야기》

(김효선지음 · 여성신문사)

만팔이었던 내가 결혼하던 날, 감성적인 아버지는 허전함을 못이겨 저녁에 술한잔 드시며 눈물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허전함 보다는 흥분한 기분이 드셨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현상은 아들을 결혼시켜 내보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자식이 있던 빈자리만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어깨에서 떨어진 부담을 실감하셨다는 얘기가. 이런 모습은 아마도 대개의 부모들이 겪게되는 심정이 아닐까? 다 큰 자식들임에도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나가기까지는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수발을 들도록 요구하는 존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최근 나온 '우리시대의 결혼이야기'에서 저자 김효선은 '공주병'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김효선의 글들을 보면서 혼자 빙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바로 그같은 이기적인 자식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와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나이의 자식에 대한 그같은 수발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감당해내는 어머니라는 현실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전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같은 부모로부터 인정받던 기

독권을 '결혼'으로써 상실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서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과 자식들이 장성해 집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제한적이거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머니 세대의 모습에서 우리의 페미니즘이 그간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든다.

한 여성의 자유가 다른 여성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에는 비교적 무관심했던 것이 아닐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비록 부작위에 의한 행위였다 해도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토대 위에서 목표를 향한 실천적 전략을 세워야 할 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변명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성해방의 이론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현실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훨씬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혼이라는 과정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직장생활에서도 그런 갈등과 고통은 감수해야 할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탈권위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진 세대일수록 남성, 여성을 떠나 권위주의가 여전히 판치는 조직생활을 감당해내기 힘들어한다.

간혹은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직장의 여성후배들에게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다. 현실에서 투쟁해야 할 대상은 결코 단면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선택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여성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동료들을 화가 나게 만드는 이기적인 여권주의자들의 직장상사들에게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많은 여성들이 '특혜와 평등'이라는 두마리 환상의 토끼를 쫓는 자기 모순으로 인해 배척당하고는 그 책임을 단순히 남녀차별로 전가시키는 경향도 드러난다.

이런 모습조차도 바로 오늘 이 땅의 여성 삶의 한

모습이다. 중간계층 이상의 누군가가 크든 작든 어느 만큼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고 그런만큼 누군가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대개의 갈등은 그 원인이 기득권이 있다, 없다는 차원이기 보다는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일 뿐이다.

불만하고 있는 모든 '나'가 누군가의 부담이 되고 불만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모른다거나 생각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그저 단순히 이기적이라고만 단정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불만의 내용, 불만의 표현양식 등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또 단정적인 논평 없이, 그러나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읽어내려는 김효선식의 읽기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시대를 읽어내는 데는 다양한 시각들이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경험하는 광범위한 장(場)을 편견없이 진솔하게 읽어내는 일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김효선의 '우리시대의 결혼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틀을 읽어내는데 소홀했던 까닭이 행여 그간의 우리들의 시대읽기의 방식이 오랜 동안 우리를 길들여온 '우월한' 남성문화적 양식에 매어 있었던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보게 하는 미덕도 지니고 있다.

홍승희 (전자신문사 전자저널 부장)

▶ 마스크에 비친 여성

사랑의 여러가지 형태를 다룬 드라마 세편 '사랑은 없다' '도전' '숨은 그림찾기'

이 세편의 드라마는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이기적이고 현신적인 사랑의 대비, 사랑과 우정, 남녀간의 현실적인 애정문제 등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극의 전개방식으로 삼각관계라는 낡은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사랑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소재개발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전개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주제에 도달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자와 연기자 모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마스크 모니터회는 9월7일, 9월28일 모임을 갖고 sbs TV 수목 드라마 '사랑은 없다' (수, 목 오후 09:50~10:50), MBC TV 미니시리즈 '도전' (월, 화 오후 09:50~10:50), KBS TV 미니시리즈 '숨은 그림 찾기' (수, 목 오후 09:50~10:50) 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론했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사랑

은 없다'는 이기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도전'은 40대의 우정과 20대의 사랑 그리고 세대간의 화합을, '숨은 그림찾기'는 세 쌍의 세대별 애정문제를 코믹적으로 다루는 드라마다.

모니터링 기간은 8월31일~9월27일까지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랑은 없다

'사랑은 없다'는 사랑은 표현하고 경쟁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자와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희생적인 여자, 그리고 맑은 영혼을 소유한 한 남자,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드라마는 대조적인 이미지의 주인공 선정과 역설적인 제목 등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드라마 시작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이 드라마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의 표현방식이 천편일률적이고 소품이나 세트의 설치 등에도 어색한 점이 많다.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꼭 회화면 화면과 참고서 등의 소품밖에 없는지 또 80년대 고등학생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구세대로 표현되어 마치 60년대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1, 2회분의 아역 연기자들의 연기는 신선하고 완성도도 높았으나 성인 연기자(황신혜, 최명길, 송채환)의 여고생 분장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서른을 넘긴 여자연기자의 교복과 갈래머리는 아무리 극이라 해도

우리가 있었다. 또한 소연(최명길 분)이 여고시절에 손톱을 기른 장면이나 명원(이진우 분)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병실에서 성호를 반대로 긋는 장면(8회), 비가 오는 밤에 화영(황신혜 분)과 명원이 골목길에서 만나는 장면은 흠뻑 젖은 모습(8회)이었으나 다음회(9회) 방 안 장면에서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사소하기는 하나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출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둘째로 지나친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 화영의 오빠 상철(이효정 분)이 아버지(주현 분)에게 보여주는 불손한 태도는 아무리 극중 성격과 상황(어머니가 없는 결손가정)을 감안한다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실갱이(4회), 화영과 상철의 싸움(6회) 등은 모두 너무 지나친 묘사였다. 또한 상철이 폭력배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칼을 사용하는 등 여과되지 않은 폭력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동거하는 여자의 임신소식(8회)에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낙태를 강요하며 구타하고 결국 낙태하게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의 단면이었다.

세째로 드라마의 많은 부분을 통해 종교적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으나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성당이라는 장소만 제공되고 있지 사실상 신학생으로서 가진 소명의식이라든가 모범적인 이미지도 약하고 신학생의 생활도 잘 표현되지 않았

다. 또한 명원이 갈등하고 있는 이 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결국 종교의 결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내부의 정신은 묻혀진 것이다.

드라마 '사랑은 없다'는 한 남자를 향한 두 여자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흥미를 끌만하나 한 여자에 두 남자, 한 남자에 두 여자식의 진부한 전개방식으로부터는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전

이 드라마는 40대 고등학교 동창생인 아버지 세대의 우정과 일에 대한 열정, 그 아들·딸 세대의 사랑과 세대간의 화합을 그린 드라마이다.

요즘 드라마로는 드물게 40대 남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했던 드라마이나 회를 거듭할수록 20대와 X세대의 드라마로 바뀌어 가는 느낌을 준다. 대공원으로 놀러가는 장면을 장시간 보여주는 등 석우(박형준 분), 소연(이시은 분), 나미(김수진 분)의 삼각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신안들의 과감한 기용은 돋보이나 연기가 미숙해 각자 서로 걸도는 느낌이 어렵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서 시도하는 참신한 기획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 직업의 설정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자동차 기술개발부장인 신광식(한인수 분), 로봇연구소장 하찬호(김호영 분), 영화감독 민동준(정동

환 분), 성우인 신광식의 아내(박정수 분) 이상의 사람들의 직업은 모두 현대의 최첨단적이고 특이한 직업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울러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전문용어를 자막으로 처리한 점도 세심한 배려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첨단직업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들이 과소평가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둘째는 아버지의 정이 많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신광식과 아들 석우, 하찬호와 딸 소연, 민 감독과 아들, 지체부자유자인 진영과 아버지 등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부정이 많이 느껴져 호뭇함을 가지게 했다. 신광식과 아들 석우, 하찬호와 딸 소연이 아버지와 허물없이 대화하는 장면, 민 감독이 아들과 함께 집 짓는 장면, 진영을 사랑으로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 등은 요즘 같은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바람직한 또 다른 모습의 아버지상이라 하겠다. 세째는 X세대 대학생들의 건전함을 보여주었다. 석우와 그 친구들이 로봇제작을 위해 부모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대공원코끼리 우리의 청소원 등으로 일하는 장면은 대학생들의 정신세계가 건강함을 느끼게 했으며 마우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스스로 로봇을 제작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대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드라마는 40대 남자를 주인공으로 정했다는 점, 첨단직업의 등장, 건전한 20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의식해서인지 20대 중심의 삼각관계나 불거리에 치중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40대 남자들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고 타성에 젖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일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숨은 그림 찾기

이 드라마는 고명순(나현희 분)과 최재필(천호진 분)의 30대, 고명순의 아버지(고철수, 박규채 분)와 한말자(김지영 분)의 50대, 그리고 민구(김성환 분)과 순애(윤순하 분)의 X세대 등 세쌍의 남녀가 각자의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그려내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문제점은 첫째 명순과 재필이 근무하는 광고회사의 모습이 다. 존각을 다루는 광고회사의 생동감을 느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어둡고 칙칙한 화면, 탁상공론식의 회의 장면, 무성인한 소품 등은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주제대로 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들이 이미 다른 드라마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극을 구성한 느낌을 준다. 양차장(조형기 분), 신입사원 윤영자 등은 다른 드라마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극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 식상한 느낌을 준다. 연기자들의 다양한 변신이 요

구된다. 세째 각기 다른 세대 세 쌍의 남녀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결국은 삼각관계라는 진부한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명순과 재필과 지혜(김나운 분), 고철수와 한말자와 윤영자의 관계는 모든 애정의 문제나 갈등을 삼각관계라는 형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제작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편의 드라마는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이기적이고 현신적인 사랑의 대비, 사랑과 우정, 남녀간의 현실적인 애정문제 등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극의 전개방식으로 삼각관계라는 낡은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사랑놀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소재개발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전개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주제에 도달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자와 연기자 모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정리 : 윤명아
(본회 매스컴 모니터)



여성의원 비율이 20%를 넘는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세인트루시아...

이영남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세계 보건투자 여성 외면

가장 기초적인 보건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 산부인과학회 회의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 관행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사회적 행동은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 아시우트 대학의 마무드 파탈라 박사를 비롯한 22명의 세계보건기구(WHO)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

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부암은 치명적인 생식기암의 44%를 차지, 유방암 발병율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진은 해마다 50만명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보건에 전세계가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은 전체의 55%에 불과하며 15세에서 44세까지의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중 두번째가 성병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또 여성의 성욕을 억제



한다는 구실로 자행되는 성기절제, 이른바 '할례'의 희생자가 하루 6백명에 이르며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40여개국에서, 최근에는 유럽 및 북미지역의 이민사회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이같은 관행의 희생자수는 모두 8천5백만명에서 1억1천4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문제는 9월초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에서도 가장 급박한 과제로 대두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회의는 행동계획을 통해 각국 정부들이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묵과해 온 이같은 학대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긴급히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는 지난 1952년 유엔 인권회의에서 처음 거론된 이래 해마다 인권단체와 여성, 의료관계자들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4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세계 여성의원 비율 10%, 스웨덴 40%로 첫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간 늘어났으나 전체의원중 비율은 10.51%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국제의회연맹(IPU)이 보고했다.

IPU에 따르면 여성의원이 전체의 39.4%를 차지하는 노르웨이를 비롯,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활발하지만 지난 6월말 현재 단 한명의 여성의원도 없는 나라가 8개국(부탄, 지부티, 키리바티, 쿠웨이트, 모리타니, 마이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아랍에미리트연합)이다.

IPU는 성명에서 전세계 의원 3만9천4백44명중 여성은 4천1백44명으로 전체의 10.5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해의

10.10%에 비하면 약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20%를 넘는 나라는 21개국 뿐으로 이들은 대부분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며 IPU 집계로 여성의원의 비례가 높은 순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세인트루시아, 덴마크, 네덜란드, 바베이도스, 세이셸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슬란드,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벨리즈,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북한, 룩셈부르크이다.

그러나 IPU의 이같은 보고서가 나온지 1주일 후 스웨덴에서 실시된 총선결과를 전체당선자 3백49명중 여성이 1백42명으로 40.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가 아닌 스웨덴으로 바뀌었다.

10월초 스웨덴 새 의회가 소집될 경우 정부 조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시민당의 경우 소속의원의 47%가 여성인데 잉그비르 칼손 당수는 새 정부 각료의 약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호주의 집권 노동당은 오는 2002년까지 당내 의석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최근 당대회에서 가결했다.

새 당규에 따르면 노동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구의 35%는 여성후보를 내야만 하며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당지도부가 후보선정에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된다.

키팅 총리는 각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노동당 소속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기로 한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당과 의회에서 보다 적절히 대표될 경우 우리는 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10월초 스웨덴 새 의회가 소집될 경우 정부 조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시민당의 경우 소속의원의 47%가 여성인데 잉그비르 칼손 당수는 새 정부 각료의 약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호주의 집권 노동당은 오는 2002년까지 당내 의석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최근 당대회에서 가결했다.

강조했다.

호주는 일찌기 1901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용했으나 실제의 여성위원이 처음 탄생한 것은 1941년이었으며 1백47석의 의회에서 현재 여성위원의 수는 14명 뿐이다.

일본, 기업들에 여성고용차별 철폐지시

일본 노동청은 최근 고용평등법 위반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금융기관과 상업 방송사들에 대해 여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전체 금융기관과 상업방송사의 80~90%를 차지하는 6백35개사에 대해 2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남녀의 고용과 승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전체금융기관의 53%인 264개 업체와 방송사의 33%인 51개 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6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고용과 승진 뿐만 아니라 훈련, 복직, 퇴직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력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노동청은 최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받은 많은 대졸 여성들의 항의를 받은데 이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우산단체들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근래 여러해동안 계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감축하면서 여직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노동청은 최근 고용평등법 시행의 시범 케이스로 기혼여직원들의 승진과 전보를 봉쇄한 스미토모 금속회사의 분규를 중재했다.

러시아 여성대상 범죄 난무

러시아에서 지난 한해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건수는 무려 30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95년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대비한 러시아준비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두 33만1천8백15건의 폭력범죄가 일어났으며 이중 1만4천명의 여성들이 숨지고 5만6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성범죄 건수는 92년에 비해 6%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3년 한해동안 강간죄로 처벌받은 범인은 1만5백명에 불과해 많은 폭력범죄의 피해여성들이 사건을 사법기관에서 다루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류드밀라 베즈레프키나 사회보호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에는 강요된 매춘, 구타, 가정내 살인, 직장내 성희롱, 기타 다양한 성차별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관계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여성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에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

독일 의회는 최근 지난 7월 로만헤어초크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에 취임해 공식으로 있던 헌법재판소장으로 여성인 유타 림바하(60) 현재 판사를 선출했다.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등 공산정권 지도자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림바하 현재소장은 사민당 소속으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 판사에 선출.

▶ 소비자 정보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본회를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민간소비자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완화와 자율적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본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입법청원의 요지

1.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완화와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활동을 보장

민간단체의 자율적이고 자구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모든 활동을 행정주도로 독점하고자 하는 행정통제 방식은 결국 민간의 자율성을 도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의 토양을 파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소비자운동의 전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적 구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향상

현행 피해구제제도 하에서는 분쟁조정 기능이 전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대대 법적 제도적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소비자행정의 강화

현재 소비자행정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소비자관련행정의 통합·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행정이 타 행정에 비해 격하되거나 도의 시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업무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행정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이는 별도 법안에

그 권한을 넘겨 주는 형식으로가 아닌 행정부 내에서의 위상강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4.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조정 및 위상정립

1987년 7월 공법인으로 개원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행정의 강화라는 대의명제하에 설립되었으나 그 역할을 공법인의 성격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부여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역할중복에 의한 예산낭비와 민간단체의 위축을 초래해왔고 오히려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장애가 되어 왔을뿐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의 소비자행정강화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비자보호원이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기능중에 고발상담기능은 민간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기능은 행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이유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의 경과

소비자보호법은 1979년 12월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0년 공포되었고 1986년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6년 개정된 이래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격심한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비판이 계기가 되어 1989년에는 평민당,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도 비교적 민간단체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다시 1992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상임

위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유로 의안상정을 보류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계류중이다.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논의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개정할 것을 의결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의 수정개정안이 다시 행정경제위원회에 제안되어 있는데 이는 여전히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개정안이라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일부 조문만 수정하는 방식의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소비자운동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전면개정이 절실하며 지금이야말로 소비자보호법의 제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2. 개정의 취지

1)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완화와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통상질서와 가속화되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보급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구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품의 안전성과 시장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 보장을 통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소비자안전 및 위해정보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국제화되어가는 상품 및 시장거래질서에 있어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의 대량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물론 경제사회의 일주체인 소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시장개입기능을 보다 적극화시킬 수 있음.

이는 공정거래질서 및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향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의사표현 상품 및 시장질서에 반영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길임.

아울러 자율민간경제시대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한 기

업경쟁력의 확보에도 부응하는 길임.

3) 소비자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신속한 구제, 처리를 도모하며 급변하는 개방적 국제통상질서에 부응하는 국가의 소비자정책 연구 개발기능의 강화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소비생활 및 국민복지 증대.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 민간소비자운동에 대한 행정적통제 강화

• 소비자를 보호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소비자문제의 주체로서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수동적 지위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자구적인 자율활동개념을 약화.

• 민간소비자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하도록 규정 (법 제19조).

• 분쟁당사자간의 임의중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일체의 피해구제와 시험·검사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공표권도 상당 부분 제한 (법 제18조).

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문제

•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정책연구기능, 고발상담기능, 분쟁조정기능) 중에 고발상담기능은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역할중복으로 인해 민간활동을 결과적으로 위축시키며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다.

• 또한 분쟁조정기능은 기본적으로 분쟁조정이 담고 있어야 할 직권조정권한이나 조사권 등이 결여되어 있어서 조정의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전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그 간의 분쟁조정과정의 결과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준사법적 권한을 보장해서 분쟁조정위원회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도록 해도 공법법인 소비자보호원에 이를 둔다는 것이 행정

체제상 논리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3) 소비자행정의 분산에 따른 문제

• 소비자행정이 소비과정 전분야와의 관련성에 의해 여러 행정부서에서 소비자행정을 분산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행정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비자행정의 강화와 분산행정의 통합역할을 소비자보호원에 위임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입장이지만 이 또한 행정체제상 공법인인 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소비자보호원의 과다한 기능과 위상문제

•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행정강화의 한 방안으로서 공법인 성격으로 설립되었으나 여기에 공법인으로서 담당하기에 적절치 못한 기능을 두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고발상담기능과 분쟁조정기능이 그것인데 이로 인해 민간소비자단체의 역할중복 내지 갈등,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쟁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피해구제실효성약화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5)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미비

현행법은 사업자의 의무규정이 추상적이고 미흡할 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2. 문제점개선을 위한 법개정방향

1)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행정통제철폐 및 권한 강화

소비자운동은 사업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운동은 본질에 있어 소비하는 주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다.

국가가 소비자를 보호와 계몽이 대상으로 묶어두는 것은 소비자운동에 대한 통제이며 구속이 되므로 오히려 국가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소비자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2)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

개별소비자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포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합의수준을 조직화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이며 기능이므로 현행 민간단체의 고발상담기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써 자율구제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여할 뿐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무의미한 시간낭비만을 초래하므로 조사관제도를 두어 조정위가 직권으로 자료 등을 조사하여 이후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임의조정에 실패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비자행정체제의 정비 및 강화

소비자관련업무가 고도로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각 행정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행정을 독립된 하나의 행정부서가 기획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4)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축소조정

현재의 소비자보호원 기능은 공법인이라는 신분에 비해 과다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정책연구와 건의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

5) 사업자의 의무강화

소비자피해발생의 형태가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또한 악덕업자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비자는 전문화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대항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 하나운동 발족

새로운 여성 통일운동체인 <우리민족 하나운동>이 지난 8월29일 발족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정자 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정은순, 신정숙, 이한숙씨가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우리민족 하나운동>은 지난 10월16일 재일한국인이 개최하는 통일 음악제에 <우리민족...> 산하의 <우리하나합창단>을 참석시키면서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남북합의서 실천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내에 일본 내 조총련 산하단체의 연맹과 공동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갑현 대한YWCA 회장, 연변대학서 세미나 개최

김갑현 대한YWCA연합회 회장은 지난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에서 연변대 부녀문제 연구진과 YWCA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의 세계와 여성문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교포들의 삶과 문화 소개와 함께 연변동포들의 삶의 현장 견학, '가자 백두산으로 민족정기를 찾아' 등 민족의 역사를 찾는 연구여행도 있었다. 김 회장은 이 모임을 기반으로 97년에는 미래 세계 여성문화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한민족 여성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우리 농산물 대축제 방문, 격려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지난 9월10일,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의 확산을 위해 농협 중앙회가 특설장터에 마련한 <사랑의 한마음 큰잔치>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올림픽 공원에 마련한 <우리 농수산물 대축제> 행사장을 잇달아 방문, 농수산물과 상품권을 구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예장통합, 여성목사 허용

지난 9월12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현의안이 통과돼 빠르면 96년부터 예장통합에서 여성목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의 여성안수 허용은 한국선교 1백10년 만에, 그리고 지난 1933년 함남노회 여신도 1백2명과 노회장이 낸 여성장로 안수허용안이 부결된지 61년 만의 일로 '한국교회사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독교장로회, 감리교단과 일부 군소교단이 이미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예장통합의 이번 결정은 개신교단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장통합의 여성안수는 아직 51개 노회별 인준과 전체 노회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아 교단헌법을 개정해야만 실시될 수 있는 어려운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총회결정이 노회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내년 4~5월에 열리는 노회별 총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빠르면 96년부터 여성목사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목사가 주로 진출할 분야는 교회내 전문상담가, 교회 교육전문가, 여성재소자, 윤락여성 전도

등 특수 목회분야가 꼽히고 있으나 점차 일반 목회 활동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경자 의원 환영회

지난 8.2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경자 의원(신민당)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선배여성정치인들의 환영회가 지난 9월12일 63빌딩 연회장 르네상스에서 열렸다. 이우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이날 환영회에는 구임희 전 의원(9대), 김옥렬 전 의원(10대)를 비롯한 전직 여성국회의원들과 주양자 의원(민자당), 강선영 의원(민자당) 등 현직 국회의원, 김숙희 교육부장관, 권영자 정무장관(제2)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회에서 현 의원은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고 답례했다.

권영자 정무장관(제2) 30대 그룹 인사담당자 초청

권영자 정무장관(제2)은 지난 9월1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30대 그룹의 인사담당자를 초청,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여성인력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대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돕기 위해 정부측에서 육아비용 등 모성비용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남녀차별적 기업규칙은 대폭 개선됐으나 아직도 여성을 귀중한 인력자산으로 인정하는 의식은 뿌리내리지 않았다"며 구매자로서의 여성을 감안할때 여성고용확대는 제품판로의 개척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30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30대 대기업 중 효성그룹, 한일합섬, 두산그룹, 금호그룹(아시아나항공), 한화그룹, 쌍용그룹, 삼성그룹, 미원그룹 등은 올 하반기 여성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성인력 채용 비율을 밝힌 기업은 기아자동차(10%), 진로그룹(10~15%), 극동건설(10%) 등이다.

이날 간담회를 위해 정무장관(제2)실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으나 50대 그룹의 여성인력 채용규모는 지난해 전체 채용인원 2만6천95명의 9.7%인 2천5백26명에 불과해 대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의지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연맹, 3단계 유권자교육 실시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에서는 내년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해 단계적 유권자교육과 선거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히 모두 세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1차 교육은 유권자연맹의 각 지부 지도자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13일과 14일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1차 교육을 마친 이들은 각 지부로 가서 각 지부 회원과 일반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2차 교육을 하고 있다. 유권자연맹은 1, 2차 교육이 모두 끝나는 10월 말 경부터는 광역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다집교육' 중심의 3차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 안심처 '열림터' 개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단체 차원의 쉼터인 <열림터>가 지난 9월14일 문을 열었다. <열림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근친강간 등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의 위험과 강간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난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보호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 개설한 것.

<열림터>는 30평 공간에 방과 거실, 욕실, 부엌 등이 마련돼 있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함은 물론 입소 기간 동안 정신 치료의 일환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입소 가능 기간은 30일로 한정돼 있으나 치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이 있으면 입소 시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열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학생도 입소가 가능한데 이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민우회 광고시간 확대 비난

여성민우회(회장 이경숙)는 지난 9월14일, 방송 광고시간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는 공보처 방침과 관련, 성명을 내고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성민우회는 성명에서 "광고시간 확대는 기업의 시장논리와 방송사의 재원확보라는 논리에 근거, 그 판단의 중요한 주체인 국민을 소외시키는 한편 방송의 공익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우회는 또 방송광고의 확대가 방송프로그램의

오락성과 질적저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고가 갖는 사회적 역기능, 여성의 상품화 및 성적 왜곡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순씨 민자 전국구 의원 승계

정옥순씨(56, 전 청와대 여성담당 정부비서관)가 민자당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했다. 동화은행 수괴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김종인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함에 따라 민자당 전국구 예비후보 1번인 정옥순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

정 씨는 지난 9월16일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한후 의원회관 623호실에 의원 사무실을 차리고 의원 활동에 들어갔다. 정씨의 의원직 승계로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총 6명(전국구 5명, 지역구 1명)으로 늘어났다.

여성단체, 정부지원 삭감돼

정무장관(제2)실은 지난 9월2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대부분의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삭감돼, 환경, 소비자운동 등 이들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무장관(제2)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모두 82개. 이 가운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는 12개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2개 여성단체에 지원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13억1천9백89만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3백33만원이 늘어난 액수지만 이는 군정 미망인회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해 8억5천1백82만1천원에서 5천8백30여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경우 지난해 3천6백33만1천원에 비해 4백여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1천3백5십만원의 예산을 받았던 가정복지연구회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장관(제2)실 등에서는 정부의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면서 여성단체도 관련단체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 예산 지원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원 VDT증후군 많이 앓아

은행 여직원들의 상당수가 VDT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이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울 신탁은행 1백52개 지점 및 부서에서 근무하는 1천3백61명(남자 5백79명, 여자 7백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VDT증후군의 건강장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귀가후까지 근골격계 증상이 심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남자 6명(1.0%), 여자 93명(11.9%)으로 총 99명(7.3%)이었으며 안과적인 증상은 남자 21명(3.6%), 여자 64명(8.2%)으로 모두 85명(6.2%) 정도가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근골격계 장애, 안과장애, 두통, 피로 등의 전신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한의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중 근골격계 장애가 1백44명(10.6%)으로 가장 많았고 안과 장애가 73명(5.4%), 두통 등의 전신 피로증상이 26명(1.9%), 피부장애가 13명(0.1%)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직원이었다.

한편 이 자료에서는 VDT작업자의 경우 2시간 작업에 15분 정도의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을 VDT 증후군의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

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창구 단말기 취급 업무, 상담업무, 환전업무, 기타 후선 업무 등의 주기적 업무 순환을 의무화하고 이후에 교체되는 모든 사무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체 공학적 적합도 및 편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연, 지자체 정보담은 책자 발간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숙 등)에서는 지자체 관련 정보를 모아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20%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초 여성의원들의 성공담과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의 장점과 그곳 여성의원들의 활동상을 담고 있다. 또 20%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보의 당위성과 여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가정복지국 폐지설

서울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기구 개편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행정기구 개편안 중 가정복지국의 업무가 사회복지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하나의 국으로 통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

가정복지국의 통합문제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내무부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지방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각 시·도지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할 때 경상남도 측이 제시한 방안 중, 가정복지국의 폐지안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 안은 정무장관(제2)실을 비롯한 여성관련 기구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가정복지국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업무상 사회복지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복지국은 관행상 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어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산실이었고 40여년간 우리나라 부녀행정을 일괄 담당해온 부녀행정사의 상징적인 존재다. 서울시 가정복지국이 폐지될 경우 중앙 행정조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방 행정체계의 실정에서 가정복지국의 자연 통합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정무장관(제2)실을 비롯한 서울시 가정복지국이 긴장하고 있다.

‘상업고 출신자 직업의식 결여는 기업과 학교 탓’ 이대 여성학 석사논문서 주장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진씨의 석사논문으로 제출된 <상업고 여학생의 사무직 노동 준비과정들 통해 본 적응과 소외>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의식이 없다는 통념은 여성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내 성차별과 성별분리 교육, 개별교사들의 고정관념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지적,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 여학생들은 상업고의 취업 조건인 ‘예쁜 외모’로 선생님 눈에 들기 과정과 교사들의 ‘일단은 많이 넣고 보자’는 취업 원리에 따라 상업고가 직업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성과 같은 직업태도를 가질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여학생들은 극도의 자기비하를 수반한 체념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이씨는 상업고 학생들과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교사들이 성차별적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나 평생 직업관을 심어주기 보다 일시적인 직장의 꽃으로 순용할 수 있는 예절만 강조해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등에서

자주 지적되어온 고졸 사무직 여성의 체념적 태도는 이러한 상업고 여학생들의 특성과 연결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논쟁대 오른 책, 〈한 몽상가의 여자론〉 수준이하 판명 받아

‘여성운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고 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유순하씨의 화제의 책 <한 몽상가의 여자론>에 대해 여성학자와 여성운동가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 이하’로 판명했다.

<한 몽상가의 여자론>은 편견에 찬 남성들의 음성적인 불평을 문자화한 것이며 여성운동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보통 남성들의 전형적인 심리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 한 여성운동가는 ‘여성운동,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오해이며 기초도 안돼 있는 책’이라며 정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 속기직 첫 여성사무관, 문체부 첫 여성국장 탄생

최근 실시된 속기사무원 시험에서 김선옥씨(41)가 국내 첫 여성사무관으로 탄생했다. 김선옥씨는 70년 1년과정의 국회속기사 양성소를 수료하고, 71년 9급 속기사 공채시험에 합격,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23년만에 사무관(5급)으로 승급한 것이다.

“현재 국회 속기사 82명중 여성은 59명에 이르고 있어서 여성사무관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던 터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 할 일을 한 것 같아 흥분하다”는 소감을 밝힌 김씨는 지난해에 국

회의장 표창을 받기도 한 성실과. 국회 사무처 행정자료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는 남편 박대성씨(45)와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1일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에 최영복씨(57)가 임명돼, 문화체육부 첫 여성국장이 탄생했다.

최 국장은 이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63년부터 서울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장, 전산실장 등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전국도서관 전산망 구축사업에 힘써왔다.

한국통신 정년차별 행정소송 기각

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 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며 한국통신측의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한국통신의 교환원인 김영희씨는 1992년 12월, 53세로 정년퇴직을 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차별정년) 구제신청서를 제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 한국통신이 지난 93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여성전용직종 이유 정년차별 무효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던 것.

이번 판결로 김영희씨의 복직은 결정되었지만 통신공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김영희씨의 복직이 연기될 뿐만 아니라 현재 53세에 이른 다른 교환원들은 올해 12월 퇴직할 위기에 처하게 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에 관한 성명서 발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이우정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법관회의가, 현행 민법상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면서도(현행 민법 809조 1항) 모계혈족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의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동법조항의 폐지가 실현되기를 관계당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9월30일에 발표했다.

권영자 정무제2장관초청 여성정책간담회



본회는 지난 9월9일 아침 7시반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권영자 정무제2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 및 타여성단체장, 정계 학계 여성계 인사 등 130여명의 여성지도자들로 성황을 이룬 이날 간담회에서 권 정무제2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이룬 여성정책 및 내년 북경에서 열리는 세계여성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기조연설이 끝난 뒤 들어간 질의 응답에서는 참석자들의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토론회는 날로 호응이 높아져 좋은 반

응을 받고 있다.(자세한 내용 특집 참조)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초청 간담회

본회는 지난 27일 낮 1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재일 대한민국 부인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일대한민국부인회 최금분 회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임원 및 지부 회장 75명을 비롯하여 본회 임원진과 회원단체장, 이윤자 주부교실회장, 유지호 한국국제교류재단, 가수 유열, 이자연, 일본관련인사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최금분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에 조국 여성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참석자 전원을 일일이 소개한 이날 행사에서 일본대표들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에 놀라고 가수 이자연이 노래한 '어머니 마음'을 듣고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후 일행은 참존화장품 산업시찰을 하였다.

재일대한민국부인회는 1947년에 설립됐으며 일본 전국에 2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재일한국민단산하의 유일한 여성단체로서 재일동포사회의 번영과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재일교포 지문날인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재일대한민국부인회는 9월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수를 가졌다.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호소문에 대한 회신

본회는 지난 8월3일 남북인사 송환을 위한 호소문을 UN인권위원회와 국제적십자, 세계여성단체 협의회 등에 띄웠었다. 이에 관해 제네바의 UN인권위원회 Jakob Th. Möller 회장은 우리의 결의를 지지하며, 우리의 호소문이 각 나라 관련단체와 산하인권위원회 그리고 차별철폐협회 등에 제출되어질것을 알려왔다.

고아원 방문

본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30일, 결연 고아원인 혜심원을 방문하고 부식품 및 과일, 과자 등을 전달하였다.

정부에서 부식비가 지급되지만 1일 1인 820원으로 영양있는 식단 및 도시락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멸치, 김, 식용류, 간장 등의 밑반찬 및 기본 양념류 등을 선물하였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간호협회

환자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월9일 협회강당에서 간호계, 의료계, 의료소비자, 정부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최영희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의 질과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의료계, 정부, 의료소비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강연에 나선 김영명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은 환자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 직종간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조화로운 협력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환자와의 접촉이 일차적이고 가장 많은 간호사가 어떻게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에 관계되는 환자, 의료인, 정부 및 보험자등 3자 간의 바람이 서로 다름을 먼저 지적한 후, 환자가 원하는 의료의 원칙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친절하며 편리한 동시에 안락하고 값이 싸며 양질의 의료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환자중심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바람을 수시로 조사하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개선안 모색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와의 접촉이 일차적이고 가장 빈번한 간호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이어 송보경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병관 보사부의정국장이 정부입장에서, 김병직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의사입장에서, 김광태 대림성모병원장이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익주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이 간호사 입장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가을농촌 일손돕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윤수자 회장과 회원들은 9월7일 충북 제천군 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오전 7시 서울을 출발해 현지 제천군회원 30명과 함께 오전평발의 고추를 따주고 돌아왔다. 한해로 인해 작황은 예년 보다 저조했지만 일조권이 좋아 병충해는 그리 심하지 않고 알차 보였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회원들은 일손이 모자라 그대로 밭에 있는 고추를 보며 안타까와 모두들 일손돕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겠다고 뜻을 모았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녀지도'
순회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9일 광운국민학교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녀지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순회교육은 작가 신상언선생의 '자녀교육과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와 시청각자료로 이루어졌다. 현대 대중문화의 실상과 그것으로 인한 자녀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녀지도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 순회교육은 앞으로 4개의 중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17일(토)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해 하시는 노인들을 방문 위로하였다. 전농동에 위치한 '소망노인의 집'을 방문, 성금전달과 식사를 마련하였다. 풍성한 추석이지만 더욱 허전함을 느끼시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리라 본다. 계속적으로 본회에서는 실시할 것이다.



소비자 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들에게 환경문제와 경제현실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제강연은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병욱 정책부장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최열 사무총장은 현재의 환경문제와 이에 주

부들이 해 나가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었다. 박병욱 정책부장은 물가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소비자로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의 기본적인 지식습득과 시사각각 변하는 첨단 미디어시대에서의 빠른 정보습득이 필요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갖자고 당부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주부들이 어떻게 올바른 소비자의 행동으로 대처해야 할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빠른 정보습득과 그것에 따른 생활을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우먼스클럽

청소년 회원 국제대회참가
평가회

본클럽 성아청소년회원이 지난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의 국제청소년대회 참가에 대한 평가회를 9월17일에 가졌다.

여기에서는 금년도 국제대회의 성격과 주제를 논의하고, 청소년회원들의 활동상황 및 그 경과에 대해 관계자들의 넓은 의견 청취와 교환이 있었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나자렛 성가원에 후원금 전달

본회는 9월8일에 2년간 회원들의 성금모금으로 적립한 1,000만원을 나자렛 성가원 후원금으로 이인복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나자렛 성가원에서는 미혼모와 대졸여성고 교도소 재소자를 돕고 무료로 책을 보내주며 전화나 편지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살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환자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9월9일 협회강당에서 간호계, 의료계, 의료소비자, 정부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최영희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의 질과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의료계, 정부, 의료소비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강연에 나선 김영명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은 환자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 직종간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조화로운 협력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환자와의 접촉이 일차적이고 가장 많은 간호사가 어떻게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에 관계되는 환자, 의료인, 정부 및 보험자등 3자 간의 바램이 서로 다름을 먼저 지적한 후, 환자가 원하는 의료의 원칙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친절하며 편리한 동시에 안락하고 값이 싸며 양질의 의료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환자중심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바램을 수시로 조사하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개선안 모색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와의 접촉이 일차적이고 가장 빈번한 간호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이어 송보경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비자 입장에서, 조병훈 보사부의정국장이 정부입장에서, 김병직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의사입장에서, 김광태 대림성모병원장이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익주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이 간호사 입장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가을농촌 일손돕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윤수자 회장과 회원들은 9월7일 충북 제천군 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오전 7시 서울을 출발해 현지 제천군회원 30명과 함께 오전평발의 고추를 따주고 돌아왔다. 한해로 인해 작황은 예년 보다 저조했지만 일조권이 좋아 병충해는 그리 심하지 않고 알차 보였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회원들은 일손이 모자라 그대로 밭에 있는 고추를 보며 안타까와 모두들 일손돕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겠다고 뜻을 모았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녀지도'
순회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9일 광운국민학교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녀지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순회교육은 작가 신상언선생의 '자녀교육과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와 시청각자료로 이루어졌다. 현대 대중문화의 실상과 그것으로 인한 자녀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녀지도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 순회교육은 앞으로 4개의 중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17일(토)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해 하시는 노인들을 방문 위로하였다. 전농동에 위치한 '소망노인의 집'을 방문, 성금전달과 식사를 마련하였다. 풍성한 추석이지만 더욱 허전함을 느끼시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도가 되었으리라 본다. 계속적으로 본회에서는 실시할 것이다.



소비자 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9월29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들에게 환경문제와 경제현실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제강연은 환경운동연합의 최일 사무총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병욱 정책부장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최일 사무총장은 현재의 환경문제와 이에 주

부들이 해 나가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었다. 박병욱 정책부장은 물가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소비자로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의 기본적인 지식습득과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 미디어시대에서의 빠른 정보습득이 필요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갖자고 당부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주부들이 어떻게 올바른 소비자의 행동으로 대처해야 할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빠른 정보습득과 그것에 따른 생활을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우먼스클럽

청소년 회원 국제대회참가
평가회

본클럽 성아청소년회원들이 지난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의 국제청소년대회 참가에 대한 평가회를 9월17일에 가졌다.

여기에서는 금년도 국제대회의 성격과 주제를 논의하고, 청소년회원들의 활동상황 및 그 경과에 대해 관계자들의 넓은 의견 청취와 교환이 있었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나자렛 성가원에 후원금 전달

본회는 9월8일에 2년간 회원들의 성금모금으로 적립한 1,000만원을 나자렛 성가원 후원금으로 이인복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나자렛 성가원에서는 미혼모와 태준여성고 교도소 재소자를 돕고 무료로 책을 보내 주며 전화나 편지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살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르완다난민구호 사업에 적극 동참

국제존타 한국지역연합회는 국제봉사사업으로 UNICEF가 벌이고 있는 '르완다난민구호'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영양사회

창립 25주년 기념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개최

영양사직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7일(수)에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활기찬 21세기는 양질의 영양서비스 실현으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창립 25주년 기념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를 I부 학술행사, II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의 내용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I부 학술행사는 미국대두협회의 후원으로 1200여명의 영양사, 식품영양관계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 분과별 학술대회, 전시회로 구성되어 「현대인의 질환과 영양서비스 대책」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영양사 실무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 및 영양사의 업무에 관계되는 식품, 기기, 자료전시 등을 통하여 영양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II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는 700명의 회원과 영양사회 공로자, 100명의 각계 인사를 모시고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의 개회사, 민경석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보건사회부 장관의 치사대독, 백남

치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양문희 국회 보사의원, 김원웅 국회교육위원의 축사를 듣고, 지금까지의 영양사의 발자취를 살피고 앞으로 영양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며, 그동안의 영양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시금 도약을 위한 영양사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시간과 25년간의 성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6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숙향)는 지난 9월10일(토)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6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회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종관교수(연세치대병원장)의 '치주질환의 진단, 치료 및 치료 후 유지', 조인호 교수(단국치대병원장)의 '치과보철의 심미적 수복방법 및 사용재료', 나성식 교수(나전치과의원장, 경희치대 외래교수)의 '치과 위생사의 바른 진료 자세', 박광호 교수(영동세브란스병원 구강외과)의 '치과진료실 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특별강연과 김선경 치과위생사(서울 치대병원)의 '악기형 환자의 외과적 치료', 김명수 치과위생사(경북대

학병원)의 '뇌성마비 아동의 치과치료', Kathryn E. George 치과위생사(오산 미8군 치과병원)의 'Children's Dental Health'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전시, 테이블크리너 및 포스터 전시, 신간서적 전시, 구강보건계몽자료 전시 및 상영, 구강위생용품 설명회, 의료보험상담, 유학상담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참석한 전국의 치과위생사들에게 최신 학술지식과 다양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대한치과위생학회 창립총회

대한치과위생학회 창립총회가 지난 9월9일(금) 오후 7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학회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첨단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의학 및 치과위생학의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술향상을 도모하고 연구, 교육하여 전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 회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임원선출에서 김숙향 본 협회 회장을 학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김숙향 회장은 동 학회 발기 대표로 학회창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3월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학회창립을 의결한바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숙향(본협회 회장), 부회장 이은숙(김천전문대), 김선경(서울치대병원), 감사 임준희(원광치대병원), 김지성(경희치대병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제6대 회장단 취임식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제6대 회장단 취임식이 9월2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와 고문이신 남호진 여사의 격려사로 진행이 되었다.

철도 신문사 이송식사장, 한국철도 동우회 차석화 회장, 철도 동우회 운영 위원장 박규채, 동대문 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회 여성 지회장 박혜옥,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이인석, 한국총연맹 이사 임정자, 신민당 부대변인 이혜숙씨등 여러분들이 자리를 빛내 주셨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께서 화환을 보냈으며 각계 인사들의 축전이 있었다.

바야흐로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활동과 연구를 하게 될 한국통일여성협의회에 보람찬 기대와 격려를 보내며 신임 고기효 회장과 다섯분의 부회장과 이사, 각 지부장, 운영위원의 뜻있는 발돋움 속에 통일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편집 후기

시월은 마지막 날의 여운과 함께 계절의
성숙함이 한껏 느껴지는 문화의 달이다.
바쁜 생활속에 잊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 좋은 연극 한편이나 친구같은 책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원고 교정하라, 전국여성대회 준비하라
바쁜 오늘 하루였지만 새내기 마음은
즐거워만 하다.
작년 가을에 물어둔 단풍잎을 마약 책
갈피에서 발견했을 때처럼. 修

월간여성 · 1994년 10월호 통권 323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4년 10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래/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권수현/김정수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
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
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자연사랑 · 고객사랑

고객사랑 30년
자연사랑으로 이어갑니다.

30년 전통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국내 의류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쌍방울그룹은
이제, 환경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창조하는 생활속의 멋과 편안함—
바로, 쌍방울그룹이 꿈꾸는
진정한 패션철학입니다.

 쌍방울그룹

•(주)쌍방울 •(주)쌍방울개발 / 무주리조트 •(주)쌍방울 다-반 •(주)쌍방울 록 •쌍방울상사(주)
•(주)쌍방울어패럴 •(주)쌍방울레이더스 •덕원관광개발(주) •화성실업(주) •태영모방(주) •석탑건설(주)